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듣기 자료 스크립트화 수준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듣기 이해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 어 교 육 학 과

김 영 화

2015

듣기 자료 스크립트화 수준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듣기 이해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2 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영 어 교 육 학 과 김 영 화

김영화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신상근 _____

심사위원 최연희 _____

이은주 _____

신상근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3
II. 이론적 배경	5
A. 실제적인 듣기 자료의 특징	5
1.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	7
가. 머뭇거림 현상	8
나. 어휘 및 문법적 특징	9
다. 음운론적 변형	10
2. 실제적인 듣기 자료 사용의 필요성	11
B. 수정된 듣기 자료의 특징	13
1.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	14
2.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	17
C. 선행 연구	19
1. 실제적인 듣기 자료 활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19
2.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과 듣기 이해에 관한 연구	22
III. 연구 방법	29
A. 연구 질문	29
B. 연구 대상	30
C. 연구 도구	31
1.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	32
2. 본 실험 듣기 평가지	33

3. 설문지	37
D. 연구 절차	38
1. 듣기 자료 유형에 따른 듣기 음성 자료 제작	38
2. 예비 실험 실시	40
3. 본 실험 및 설문 조사 실시	40
E. 자료 분석 방법	40
F. 연구의 제한점	41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3
A.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43
B.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	46
1. 듣기 평가의 난이도	47
2.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49
3.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본 듣기 평가 비교	50
가. 화자의 발화 속도, 발음, 억양	51
나. 화자의 발화에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	53
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태도	56
V.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3
<부록 1>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	71
<부록 2> 본 실험 듣기 평가지	74
<부록 3> 준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	77
<부록 4> 준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	80
<부록 5> 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	82
<부록 6> 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	84

<부록 7> 설문지	86
ABSTRACT	88

표 목 차

<표 1>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특징 비교	16
<표 2> 상·하수준별 집단 구성	30
<표 3> 집단의 동질성 검사	31
<표 4> 듣기 평가 음성 자료의 구성	33
<표 5> 듣기 평가 음성 자료의 언어적 난이도	34
<표 6> 설문 문항 구성 요소	38
<표 7> 집단별 듣기 평가 점수 기술통계	43
<표 8> 상·하 수준별 듣기 평가 점수 기술 통계	44
<표 9> 듣기 평가 점수 이원분산분석 결과	44
<표 10> 듣기 평가의 난이도	47
<표 11>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49
<표 12>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 속도 비교	51
<표 13>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음 비교	52
<표 14>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억양 비교	52
<표 15>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머뭇거림 비교	54
<표 16>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고쳐 말하기 비교 ..	55
<표 17>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표현 반복 비교	55
<표 18>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한 찬반 의견	56

그림 목 차

<그림 1> 즉흥적인 발화와 준비된 발화 비교	6
<그림 2> 스크립트 기반 대화와 실제적인 대화의 비교	15
<그림 3>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hair 자료의 예시	35
<그림 4>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rock art 자료의 예시	36
<그림 5>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	46

논문개요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되는 대부분의 듣기 평가 음성 자료는 화자가 즉흥적인 발화를 구사할 가능성을 제한하여 머뭇거림 현상과 같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의 구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음성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듣기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준스크립트 방식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듣기 음성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준스크립트 방식은 스크립트 방식보다 녹음 과정에서 화자에게 즉흥적인 발화를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제공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 어문법적 특징, 음운론적 변형으로 인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에 차이가 생기므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결과는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스크립트 방식과 스크립트 방식으로 듣기 평가 음성 자료를 제작하여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영어 듣기 이해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을 달리하여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를 비교하여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평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강의 유형 듣기 평가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음성 자료는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의 상·하위 수준별 듣기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수험자가 시험을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준스크립트 집단보다 스크립트 집단이 화자의 발화가 더 자연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익숙한 수험자들은 머뭇거림 현상과 같이 즉흥적인 발화가 갖는 특징을 포함하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실시한 듣기 평가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음성 자료를 실제 듣기 평가에 활용한다면 평가의 긍정적 환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면 교사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며, 학습자도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익숙하여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더 어렵다고 느끼므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듣기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학습 목표,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실제적인 듣기 자료 또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교수 활동에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언어 자료를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언어 평가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은 평가 과제가 실제 의사소통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뜻하므로(신상근, 2010; Bachman, 1991) 듣기 평가에서 진정성을 높이려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되는 구어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Rubin, 1994). 대부분의 듣기 평가에서는 원어민 화자가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방식으로 음성 자료를 제작하는데 스크립트 기반 음성 자료는 화자가 즉흥적인 발화를 구사할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ield, 2008).

즉흥적인 발화에서는 휴지(pause), 잘못된 시작(false start), 잉여성(redundancy) 등의 머뭇거림 현상이 나타나며(Griffiths, 1991) 논리적인 체계성이 다소 결여되고 단순한 구문의 특징을 보인다(Chafe, 1982). 그 외에도 속어나 구어체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연결, 동화, 탈락, 삽입, 축소와 같은 음운론적 변형도 나타난다(Celce-Murcia, Brinton, & Goodwin, 1996). 그러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의 화자는 주어진 스크립트를 보고 읽기 때문에 듣기 음성 자료에 이와 같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듣기 평가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음성 자료가 사용될 경우 평가 과제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달라지므로 평가의 진정성은 낮아지게 된다. 평가의 진정성은 구인 타당도와 직결되므로 평가의 타당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신상근, 2010). 그러므로 듣기 평가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결여되지 않은 듣기 자료의 사용이 필요하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발화 자료를 듣기 평가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구어 자료를 듣기 평가에 사용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Buck, 2001). 해당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듣기 능력에 적합하면서 시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구어 자료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Carr, 2011; Richards, 2006) 해당 듣기 평가에 적합한 실제 구어 자료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권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Wilson, 2008). 따라서 평가의 구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듣기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듣기 음성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준스크립트(semi-scripting)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Buck, 2001; Carr, 2011; Wilson, 2008). 준스크립트 방식은 원어민 화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내용은 알려주지만 스크립트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자에게 읽어야 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스크립트 방식보다 녹음 과정에서 화자에게 즉흥적인 발화를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제공한다. 그러므로 준스크립트 방식은 완전한 스크립트 방식보다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듣기 음성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는 발화 속도, 휴지, 잉여성이과 같은 특징을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각기 독립적인 특징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루어졌다(최인철, 2010; Blau, 1990; 1991; Cha, 2005; Chaudron & Richards, 1986; Chiang & Dunkel, 1992; Griffiths, 1990; Pica, Young & Doughty, 1987; Voss, 1979).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는 발화 속도, 휴지, 잉여성과 같은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즉흥적으로 발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실제 즉흥적으로 발화된 자료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국외에서도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즉흥적으로 발화된 음성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Wagner와 Toth(2014)에 의해 이루어졌다. Wagner와 Toth(2014)는 수험자가 스크립트 없이 즉흥적으로 발화된 대화와 스크립트 기반 대화를 들을 때 듣기 이해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Wagner와 Toth(2014)의 연구 결과에서는 수험자들이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보다 즉흥적인 발화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다고 보았으나 이 연구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화 유형에 따라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험자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포함된 강의와 스크립트 기반 강의를 들을 때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듣기 평가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언어 자료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의 경우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반영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듣기 평가 상황에서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을 달리하여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를 비교하여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음성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논문의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수정된 듣기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연구 질문, 연구 대상, 연구 자료,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할 것이며 IV장에서는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영어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음성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설문 결과 응답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수정된 듣기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이론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듣기 자료 활용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과 듣기 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A. 실제적인 듣기 자료의 특징

실제적인 언어 자료(authentic language 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carcella와 Oxford(1992)는 원어민 화자를 위해 쓰이는 수정되지 않고 생략되지 않은 언어 자료를 실제적인 자료라고 보았으며 Tomlinson(1998)은 언어 교수 활동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자료를 실제적인 언어 자료라고 하였다. 실제적인 언어 자료는 실제 그 언어가 쓰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거나 발화된 언어 자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 자체가 실제적인 듣기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영화, 라디오, 뉴스, 인터뷰, 일상 대화 등에 나타나는 구어를 들 수 있다. 실제적인 듣기 자료는 발화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한다(Tannen, 1982). <그림 1>에 제시된 예시는 폭설로 인해 스키 여행 일정이 재조정 된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어이지만 첫 번째로 제시된 언어 자료는 그룹 리더의 즉흥적인 발화이고, 두 번째로 제시된 언어 자료는 안내 방송을 위해 스크립트를 준비한 발화이다.

<그림 1> 즉흥적인 발화와 준비된 발화 비교
(Tremblay, 1989, p.12)

그룹 리더의 즉흥적인 발화

I know some of you know already, but tomorrow ... because we missed the ski trip today ... tomorrow we're gonna leave around nine, nine-thirty ... OK? ... OK ... so we're gonna try to be at the bus at nine-thirty and we're gonna go skiing there all day ... but I'm gonna stay like in the cafeteria for individual meetings with people ... like the two people who were supposed to have their meetings tomorrow ... OK ... like if it's in the morning, ... they'll go skiing in the afternoon. I don't know for sure how long it's gonna take ... like it's between ... usually it's between one hour and a half and two hours depending on the person ... and ... uhm ... what he has to say, I guess. So this is for one thing tomorrow ... and so I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agrees ... do we want to go skiing and have the meetings over there instead?

안내 방송을 위해 준비된 발화

Since our ski trip today had to be cancelled, I propose that the trip be rescheduled for tomorrow and that the two meetings planned for tomorrow take place in the cafeteria at the ski lodge. This means that the people involved will miss out on some ski time, depending on how long the meeting takes. If no one objects then, we will go skiing tomorrow instead. Buses will leave at nine-thirty.

위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통해 즉흥적인 발화에서 머뭇거림 현상인 휴지, 잘못된 시작, 잉여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크립트를 만들어 읽는 방식의 준비된 발화는 머뭇거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문어체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어일지라도 즉흥적인 발화인지 준비된 발화인지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자가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발화는 준비된 발화보다 즉흥적인 발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듣기 교육과 평가에서 활용되는 듣기 자료는 준비된 발화의 특징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다(Vandergrift & Goh, 2012). 학습자들

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다양한 발화의 특징에 노출될 필요가 있지만 듣기 교육과 평가 분야에서 주로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된 듣기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준비된 발화에 익숙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듣기 자료 중에서도 즉흥적인 발화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

즉흥적인 발화는 오직 한번만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Buck, 2001). 청자는 화자에게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화자는 청자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 이전에 발화한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말해주기보다 다르게 고쳐 말하게 된다. 만약 화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발화를 다시 해 주었을지라도 강세나 억양은 반복되는 정보를 위해 달라진다.

Rost(2002)는 즉흥적인 발화는 자연스러운 속도를 보이며 축소, 동화, 탈락과 같은 자연스러운 음운론적 현상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스러운 휴지와 억양을 보이고 고빈도 어휘를 사용하며 짧고 정형화된 발화, 은어와 같은 구어체적 표현, 맞장구를 포함한 실제 청자를 향한 발화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자가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Wagner와 Toth(2014)가 세 가지로 분류한 머뭇거림 현상, 어휘 및 문법적 특징, 음운론적 변형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머뭇거림 현상

즉흥적으로 발화되는 구어에서 나타나는 휴지, 잘못된 시작, 잉여성 등을 Griffiths(1991)는 머뭇거림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휴지는 채워진 휴지(filled pause)와 빈 휴지(silent pause)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채워진 휴지는 *uh, oh, hmm, ah, well, say, just, kind of, I mean, I think, I guess*와 같이 발화되면서 지속되던 발화가 멈춰지는 휴지를 말하며, 아무 발화 없이 발화가 멈춰지는 휴지를 빈 휴지라고 한다(Richards, 1983).

잘못된 시작은 화자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시작하였으나 자신이 말하던 발화를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발화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Tree, 1995) *For a really champion one you can-it's gonna be twenty cents...*와 같은 예시 발화에서 *you can*이 잘못된 시작의 예이다. 먼저 발화되었지만 중단된 정보인 *you can*은 잘못된 시작이며 뒤에 새로운 정보로 대체된 발화인 *it*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잉여성은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데 화자는 발화 상황에 따라, 청자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직감적으로 잉여성의 정도를 달리하여 제공하게 된다. 잉여성은 발화의 음성적, 음운적, 형태소, 구문론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I walked to work yesterday*와 같은 문장에서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는 *-ed*와 *yesterday*는 모두 과거임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walked*의 *-ed*가 어떤 이유에서든 삭제되었어도 청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Buck, 2001).

머뭇거림 현상은 학습자들이 원어인 화자의 발화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적 공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과정에 도움을 주므로 듣기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다(Blau, 1990;

Butterworth, 1980; Lam, 2002; Vandergrift & Goh, 2012). 그러나 머뭇거림 현상이 학습자의 듣기 과정에서 부각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방해하여 학습자들의 듣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Freedle & Kostin, 1999; Griffiths, 1991; Voss, 1979).

나. 어휘 및 문법적 특징

즉흥적으로 발화된 언어는 아이디어 단위가 짧으며, 단순한 구문의 구조로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며,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Chafe, 1982). 어휘는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it, somebody, they, you, thing*과 같은 상황이 공유된 상황에서 이해 가능한 일반적인 어휘가 주로 사용된다(Brown & Yule, 1983). 또한 화자는 발화의 편의성을 위해 담화 내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담는 단어는 탈락시켜 아예 발화하지 않거나 이미 만들어진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발화 과정을 좀 더 단순화한다(Lam, 2002). 그 외에도 즉흥적인 발화의 유형이 일상적인 대화인지 이야기체 인지에 따라서 다른 문법적 특징이 나타난다(McCarthy & Carter, 1995).

McCarthy와 Carter(1995)는 즉흥적인 발화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코퍼스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즉흥적인 발화에 나타나는 문법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Nottingham 코퍼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간접 화법에서 전달 동사가 진행형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동사의 사용에서 '*tend to*'라는 표현이 주목할 만큼 빈도수가 많았다. 또한 부가의문문과 같은 부가적 표현(tag)이 자주 등장하였다.

McCarthy와 Carter(1995)는 즉흥적인 발화에 나타나는 문법적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 학습자는 관련 영어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rown(1995)은 실제적인 듣기 활동을 어렵게 만든

는 속어나 은어 등이 적게 포함된 준비된 발화가 오히려 청자의 듣기 활동의 방해 요인을 줄여주어 더 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 음운론적 변형

사전에 표시된 발음 기호는 대개 그 단어가 단독으로 발음될 때 쓰이는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의 실제 발화에서는 하나의 의사 단락을 이루는 단어들이 연이어 발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강세를 받지 않는 부분은 발음이 약화되어 발음되거나 아예 생략되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구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음운론적 변형을 ‘연성 변이(sandhi-variation)’ 또는 ‘연속 발화(connected speech)’ 라고 하는데 연속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음운 변화 현상에는 연결, 약화, 동화, 탈락, 축약 등이 있다.

연결은 발음을 부드럽고 쉽게 하기 위하여 앞뒤에 오는 단어들을 함께 연이어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한중임, 2001). 예를 들어 문어체로 볼 때에는 *plan it*으로 서로 다른 두 단어인데 연속 발화에서는 *planet*과 같이 마치 한 단어처럼 들리는 경우이다(Bowen, 1975). 동화는 한 음이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그 소리와 유사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Would he help?*라는 문장은 *Woody help?*라고 발음되는 경우이다(한중임, 2001). *What did you do yesterday?*라는 문장은 *What'd ja do yesterday?*로 발음될 수 있는데 이는 강세를 받지 않는 부분은 발음이 약화되는 경우이다(Henrichsen, 1984).

즉흥적인 발화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형은 발음을 부드럽고 쉽게 하려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간결화 현상이다(한중임, 2001). Avery, Ehrlich와 Jull(1992)은 이러한 간결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연속 발화의 소리 형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영어 학

습자를 즉흥적인 발화 자료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청자가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머뭇거리럼 현상, 어휘 및 문법적 특징, 음운론적 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은 학습용 듣기 자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적인 듣기 자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한 듣기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제적인 듣기 자료 사용의 필요성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에서는 가능하면 실제적인 언어, 즉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가르칠 것을 권장하였으며, 상당수 연구자들은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교수 활동에 활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Field, 2008; Gilmore, 2007, 2011; Lam, 2002; Rost, 2002).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교수 활동에 활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은 실제적인 언어 자료의 활용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고(Field, 2008; McGarry, 1995), 이들의 교실 밖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다(Wong, Kwok & Choi, 1995)고 주장한다.

Lam(2002)은 즉흥적인 발화는 글로 쓰인 언어를 크게 읽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학습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교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 활동을 통해 글로 쓰인 언어를 크게 읽는 발화와 달리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리럼 현상과 같은 특징은 청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구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Underwood(1989)는 많은 교사들이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교수 활동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실제 교수 활동에서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해당 교수 목표에 적합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적합한 자료를 찾았다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의 듣기 학습 경험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듣기 자료 또는 실제적인 자료와 가까운 듣기 자료를 교수 활동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Griffiths, 1991; Guariento & Morley, 2001; Ur, 1984; Widdowson, 2003). 그들은 영어 듣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학습 자료로 활용할 경우 학습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듣기 학습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보았다.

Guariento와 Morley(2001)는 교수 활동에서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동기 부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목표 언어 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한 유의미한 교수 활동이 가능하지만 언어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실제적인 언어 자료가 어렵게 느껴져 의미 있는 교수 활동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습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동기 부여가 가능한 언어 자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언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화된 언어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어 자료를 단순화하는 것은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Ur(1984)는 또한 화자가 발화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음성만을 듣는 것은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원어민이 듣기에도 이해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통해 화자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고자 하는데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이나 얼굴 표정,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음성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정보만으로 화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 학습 활동에서 비언어적 정보가 제한된 실제적인 음성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영숙과 문영인(2004)도 영어 교육에서 실제적인 언어 자료의 활용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라는 요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 활동에서 활용할 언어 자료는 실제적 언어의 특질을 많이 반영하되,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인 듣기 자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연구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 학습자에게도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되는 실정이다.

B. 수정된 듣기 자료의 특징

수정된 언어 자료(modified language material)란 언어의 구조, 발음, 형태, 발화 속도 등을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활용될 목적으로 편집한 자료를 말한다(Underwood, 1989).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통해 발화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Paulston & Bruder, 1976) 수정된 듣기 자료는 대부분 원어민 화자가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방식으로 제작되므로 언어적 정보 외에 휴지, 머뭇거림, 잘못된 시작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가 적은 편이다(Field, 2008).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되는 듣기 자료가 실제적인 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정보가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Field, 2008). 준스크립트 기반 방식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머뭇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언어적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수정된 듣기 자료는 대부분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되므로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된 듣기 자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활용되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화자가 의도된 발화를 하기 위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스크립트로 작성하여 화자가 크게 읽는 방식으로 제작된 듣기 자료를 말한다(Carr, 2011). 아래 <그림 2>는 Wilson(2008)이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와 실제적인 듣기 자료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두 자료 유형에 대한 대화 예시이다. 예시 안의 ‘||’ 표시는 발화의 겹침(overlap)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었으며 온점은 휴지를 나타낸다.

<그림 2> 스크립트 기반 대화와 실제적인 대화의 비교
(Wilson, 2008, p. 31)

스크립트 기반 대화

W: What type of exercises are you keen on?
M: I'm Keen on running.
W: Do you do it regularly?
M: Er ... three or four times a week.
W: Where do you run?
M: In the park.

실제적인 대화

M: || Are you in, are you in fairly good shape? Do you still keep .. keep fit?
W: ... I think so, yeah. In my opinion, yeah.
M: Well, what do you do exactly? To, to stay fit?
W: Mmm. Keep a routine, a routine like going ... doing something every day.
M: Uh huh ||
W: || It doesn't matter what it is but
M: (Wh) But ||
W: || What I do more is going to the gym, lifting weights || and
M: || Uh huh
W: (What ...?)
M: But you do something, one of these, every day, one or two of these every day. Is it ... ?
W: No, I do it, I do it every day.
M: One or two of those every day, one or two of those exercises?
W: No, no, I do both of them || but
M: || Ah, right.
W: For example, when the gym is closed on ||
M: || Yeah.
W: I do something every day. I have to do something every day.
M: Ah, right, right, OK.

<그림 2>의 예시를 보면 스크립트 자료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자료에서 발화

의 겹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단어의 반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의미 협상이 나타나며 잘못된 시작 (*like going doing something*)도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묻고 답하는 대화인데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서는 6차례 대화가 오고간 반면에 실제적인 듣기 자료에서는 19차례의 대화가 오고갔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듣기 자료가 정보의 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크립트 기반 대화에는 겹침 현상, 표현의 반복, 의미 협상, 잘못된 시작 등 즉흥적인 발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감안하여 학습 목적에 맞게 제작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비하여 자연스러움이 결여되어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 Underwood(1989)는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듣기 학습을 위해 수정된 언어 자료의 특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특징 비교
(Underwood, 1989, pp. 99-100)

실제적인 듣기 자료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
- 자연스러운 운율	- 부자연스러운 운율
- 자연스러운 억양	- 부자연스러운 억양
- 자연스러운 발음	- 과도하게 명확한 발음
- 대화자 간 발화의 겹침 현상	- 대화자 간 발화의 겹침 현상이 없음
- 정상적인 발화 속도(빠르거나 느린 발화가 모두 나타남)	- 느리고 단조로운 발화 속도
-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언어가 사용됨	- 구조화된 언어가 사용됨(말하는 것이 아닌 읽는 듯함)
- 불완전한 문장, 잘못된 시작, 머뭇거림 현상이 나타남	- 발화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타남
- 주변 잡음, 주변 화자의 잡음	- 주변 잡음이 나타나지 않음
- 자연스러운 발화의 시작과 끝	- 인위적인 발화의 끝과 시작
- 정보의 밀도가 낮음	- 정보가 밀도가 높음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과도하게 명확하게 발음해주므로 연속 발화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Brown, 2012). 그러므로 억양과 운율이 실제 대화와 비교해서 어색하다. 대화자 사이에 말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발화 속도도 인위적으로 느리며,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일정 수준 듣기 교육 및 평가에서 필요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으로(Field, 2013; Green, 2014) 실제적인 듣기 자료와 수정된 듣기 자료가 듣기 학습 목표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Wilson, 2008). 예를 들어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를 학습하는 경우 실제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의문문의 형식에 대해 학습하는 경우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교수 활동에서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에게 쉽게 느껴져 학습 초기의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Oxford, 1993) 언어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언어 자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Guariento & Morley, 2001).

그러나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된 자료에만 익숙해진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자료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인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Jacob et al, 1988). 그러므로 학습 목표나 평가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언어 자료의 특질을 반영한 듣기 자료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가 즉흥적인 발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Buck, 2001; Carr, 2011; Field, 2008).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녹음 과정에서 대략적인 기본 아이디어만을 결정해 놓고 화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비해 휴지, 머뭇거림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화자가 표현해야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제한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Carr, 2011). 듣기 자료를 준스크립트 방식으로 제작할 때 화자에게 주제만을 알려주고 발화하게 할 경우, 화자에 따라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듣기 자료가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화자에게 해당 내용과 흐름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에 맞게 발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에게 발화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발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Buck, 2001) 화자의 발화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나타나는 휴지, 머뭇거림과 같은 현상이 실제 구어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과는 다른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Field, 2008). 즉, 미리 계획된 구어를 구사하기 위해 정해진 내용을 생각하기 위한 머뭇거림일 수 있으며 때로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머뭇거림을 추가함으로써 인위적인 발화가 될 수 있다(Buck, 2001). 그러므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화자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도 어느 정도 인위성을 갖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발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는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비해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 선행 연구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언어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해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적인 듣기 자료 활용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제적인 듣기 자료 활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실에서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동규, 2008; Gilmore, 2011; Hayati, 2010; Kienbaum, Russel & Welty, 1986).

Gilmore(2011)는 62명의 일본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이 영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실제적인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10개월간 교수 활동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학습용으로 수정된 듣기 자료로 구성된 교재만을 활용하여 교수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듣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듣기 자료에 대한 노출의 양이 비슷하고 동일한 교수자에 의해 교수 활동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의 듣기 점수가 통제집단의 듣기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실험집단이

실제적인 자료에 노출되면서 실제 구어가 갖는 음운론적 특징을 인지하는 기회를 가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느린 속도로 발화된 자료에 노출되면서 구어체가 갖는 음운론적 특징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동규(2008)는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 149명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영어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학습용으로 수정된 듣기 자료로 구성된 교재로 70분간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제적인 영어 자료로 코민 영화를 활용하여 나머지 30분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듣기 학습 교재로만 수업을 진행하였다. 12주간의 듣기 교수 활동을 실시한 후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교수 활동에 활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듣기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상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듣기 교수 활동에 실제적인 언어 자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ashtchi와 Afzali(2011)는 이란 대학생 영어 학습자 45명을 대상으로 의식 상승 과업 활동을 통한 구어 문법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집단은 구어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문법적 특징을 학습하면서 의식 상승 과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구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없이 코퍼스 자료만을 제공하여 듣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16주간의 학습이 끝난 후,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식 상승 과업을 통해 구어체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학습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더 잘 이해하였다. 이는 구어체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Carter와 McCarthy(2006)의 견해를 지지한다.

Hayati(2010)는 이란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듣기 학습 자료의 발화 속도가 학습자의 듣기 이해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한 집

단은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를 가진 실제적인 듣기 자료로 교수 활동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한 집단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어 발화 속도가 다소 느린 듣기 자료로 교수 활동을 실시하였다. 13주간의 교수 활동을 실시한 후,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를 가진 듣기 자료로 학습한 집단과, 느린 발화 속도를 가진 듣기 자료로 학습한 집단의 듣기 능력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듣기 능력에 향상을 보였으나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를 가진 듣기 자료로 학습한 집단이 더 큰 폭의 듣기 능력 향상을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과 상반되게 Kienbaum 등(198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 실제적인 자료 활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미국 대학생 29명을 대상으로 30주 간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에는 실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전통적인 일반 교재만을 사용하여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이 종료되고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두 집단의 외국어 능력 향상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성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eacock(1997)은 실제적 자료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학습자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한국 대학생 초기 영어 학습자 21명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자료와 학습용으로 제작된 자료를 7주간 하루씩 번갈아가며 교수 활동에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수업 활동을 관찰한 결과,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자료가 수업 자료로 활용될 때 수업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 동기 부여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실제적인 자료가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습자들은 흥미도 측면에서는 인위적으로 편집된 자료에 흥미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적인 듣기 자료의 활용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료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듣기 자료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가 우세한 편이다.

2.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과 듣기 이해에 관한 연구

듣기 평가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음성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발화 속도, 휴지, 잘못된 시작, 잉여성과 같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반영한 음성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최인철, 2010; Blau, 1990; 1991; Cha, 2005; Chaudron & Richards, 1986; Chiang & Dunkel, 1992; Griffiths, 1990; Pica, et al., 1987; Voss, 1979).

Griffiths(1990)는 영어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오만 초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발화 속도가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연구자는 분당 150 단어를 정상 발화 속도로 보고 분당 200 단어를 빠른 속도, 분당 100 단어를 느린 속도로 정의하고 발화 속도를 달리하여 듣기 자료를 녹음하였다. 발화 속도를 달리하여 녹음한 자료를 사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 발화 속도에 대한 듣기 점수와 비교하여 빠른 발화 속도에 대한 듣기 점수는 낮았으나 느린 발화 속도에 대한 듣기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나 원어민이 학습자에게 인위적으로 늦추어 말하기 보다는 정상 발화 속도로 말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았다.

Blau(1990) 또한 72명 폴란드 대학생과 100명의 푸에르토리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화 속도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게 하였다. 발화 속도를 늦춘 듣기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분당 170 단어를 정상 발화 속도로 보고 분당 170 단어의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와 분당 145 단어로 발화 속도를 늦춘 듣기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험자들의 듣기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정상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와 느린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Blau(1990)는 추가적으로 36명의 폴란드 학생과 70명의 푸에르토리코 학생을 대상으로 분당 200 단어를 정상 발화 속도로 보고 정상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에 빈 휴지를 삽입하여 발화 속도를 분당 185 단어로 늦춘 듣기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당 200 단어의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와 분당 185 단어의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빈 휴지를 삽입하여 발화 속도가 느려진 듣기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가 정상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두 연구 결과를 통해 인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문장 사이에 휴지를 포함하는 것이 듣기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최인철(2010)은 다양한 발화 속도를 듣기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변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고등학생 188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통제집단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균 발화 속도인 분당 150 단어를 반영한 듣기 시험을 실시하고 실험집단에는 통제집단에 실시한 시험의 발화 속도를 중간단계로 하여 그 중간 발음 속도를 5단계로 나누어 10%씩 빠르고 느리게 녹음한 자료로 듣기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다양한 발화 속도로 구성된 실험집단의 듣기 평가 결과가 동일한 발화 속도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듣기 평가 결과보다 높은 신뢰도와 변별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발화 속도를 고려하여 듣기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Blau(1991)는 48명의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화 속도와 휴지가 수험

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빈 휴지가 포함된 듣기 자료, 채워진 휴지가 포함된 듣기 자료, 인위적으로 발화 속도를 늦춘 듣기 자료, 정상 발화 속도의 듣기 자료를 각각 제작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험자의 듣기 평가 점수를 살펴본 결과, 채워진 휴지가 포함된 듣기 자료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세 가지 듣기 자료에 대한 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학습자의 듣기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느린 발화 속도 또는 빈 휴지보다 채워진 휴지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Voss(1979)는 외국어 학습자가 휴지나 잘못된 시작이 포함된 음성 자료를 듣게 될 때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독일인 영어 학습자 22명을 대상으로 실제 인터뷰 자료를 듣고 전사하는 과제를 하게 하여 머뭇거림 현상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전사 과제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머뭇거림 현상이 포함된 어휘나 문장을 듣고 전사하는데 있어 다른 어휘로 잘못 전사하는 인지적 오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그는 휴지나 잘못된 시작이 학습자의 듣기 과정에서 부각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Chaudron과 Richards(1986)는 휴지를 포함한 듣기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1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휴지가 포함되지 않은 듣기 자료와 휴지가 포함된 듣기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강의 듣기에서 휴지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빈 휴지는 학습자의 듣기에 대한 집중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Cha(2005) 또한 휴지가 포함된 듣기 음성 자료가 영어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15명의 한국 대학생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

다. 강의 유형의 TOEFL 듣기 자료를 각각 보통 속도의 음성 자료, 빈 휴지를 포함한 음성 자료, 채워진 휴지를 포함한 음성 자료로 제작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듣기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세 음성 자료에 대한 듣기 평가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빈 휴지를 포함한 듣기 음성 자료는 오히려 학습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머뭇거림 현상을 포함한 듣기 자료는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Chiang과 Dunkel(1992)은 중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 388명을 대상으로 잉여성이 풍부한 듣기 자료가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에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을 반복하여 잉여성을 풍부하게 수정한 듣기 자료를 사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수정하지 않은 듣기 자료를 사용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 결과, 실험집단에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듣기 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잉여성의 도움을 받았으나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듣기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듣기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잉여성이 풍부한 듣기 자료보다는 휴지나 단순한 표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다.

Pica 등(1987)은 16명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잉여성이 풍부한 듣기 활동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 집단에는 상호작용 없이 강의자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듣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한 집단은 학습자와 강의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강의 자료에서 나타난 잉여성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 집단의 강의 자료에서 많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발화되며 잉여성이 훨씬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의를 마무리 된 후 학습자의 듣기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

자는 듣기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잉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듣기 자료보다 잉여성이 풍부한 듣기 자료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이 있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잉여성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듣는 내용을 이해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발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한 연구도 존재한다(Read, 2002; Shohamy & Inbar, 1991). Shohamy와 Inbar(1991)는 발화 유형을 구어적 특징을 가진 정도에 따라 대화, 강의, 뉴스로 분류하여 발화 유형이 150명의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뉴스 유형의 듣기 음성 자료는 머뭇거림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어체적이고 명시적인 어휘가 사용되었다. 강의 유형의 듣기 음성 자료는 머뭇거림 현상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며 단순한 문장, 복잡한 문장이 모두 사용되었다. 대화 유형의 듣기 음성 자료는 암시적이며 불완전한 끝맺음, 가장 많은 머뭇거림 현상을 포함하였으며 주로 단순한 문장의 구조를 보였다.

발화 유형을 달리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자들의 듣기 점수를 분석한 결과,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화, 강의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적은 뉴스 자료에 대한 듣기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험자들이 머뭇거림 현상이 없으며 혼자 말하는 뉴스 유형에서 자신의 듣기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강의나 대화 유형에서는 머뭇거림 현상, 청중이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청취하며 자신의 듣기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 것이 듣기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Read(2002)는 성인 영어 학습자 96명을 대상으로 발화 유형을 독백 담화와 토론으로 나누어 발화 유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담화 음성 자료를 녹음하고 준스크립트 방식으로 토론 음성 자료를 녹음하여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험자들의 듣기 점수를 분석한 결과, 담화 형식의 듣기 음성 자료를 청취한 집단이 토론 형식의 듣기 음성 자료를 청취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듣기 점수가 높았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제작된 담화 형식이 토론 형식보다 주제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Shohamy와 Inbar(1991)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화 유형에 따라 다방면적인 특징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특정 요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과 달리 Wagner와 Toth(2014)는 실제 즉흥적인 발화 자료를 듣기 평가 음성 자료로 활용하여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스페인어 학습자인 대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즉흥적으로 발화된 대화 음성 자료와 스크립트 기반 대화 자료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발화된 대화 음성 자료를 청취하며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가 즉흥적으로 발화된 대화 음성 자료를 청취하며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를 더 어려워한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과 듣기 이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발화 속도, 휴지, 잉여성이라는 각기 독립적인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는 발화 속도, 휴지, 잉여성과 같은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즉흥적인 발화의 여러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음성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여러 특징을 포함하는 음성 자료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국외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Wagner와 Toth(2014)의 연구는 수험자가 즉흥적으로 발화된 대화와 스크립트 기반 대화를 들을 때 듣기 이해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 있다.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발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화 유형에 따라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험자가 강의를 들을 때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원어민 화자가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으며 녹음하는 스크립트 방식으로 제작된 듣기 음성 자료와 스크립트 없이 내용만 숙지한 채 녹음하는 준스크립트 방식으로 제작된 듣기 음성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연구 대상, 연구 자료, 그리고 연구의 절차와 연구 자료의 분석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A.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를 비교하여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다음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분석해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영어 듣기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듣기 자료 유형과 수험자의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셋째,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B.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영어 듣기 이해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I 고등학교 1학년의 네 학급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학급을 임의로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 듣기 점수가 없는 학생 2명, 본 실험에 미응시한 학생 3명, 설문 조사 결과, 1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 3명은 제외되어 준스크립트 집단 35명, 스크립트 집단 34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듣기 능력 수준에 따른 듣기 자료 유형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의 TOEIC 듣기 평가 점수의 중간값인 27점을 기준으로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준스크립트 집단의 상·하 수준별 집단 구성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스크립트 집단의 상·하 수준별 집단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하수준별 집단 구성

집단	인원수	하위집단	학생수
준스크립트	35	상위수준	19
		하위수준	16
스크립트	34	상위수준	21
		하위수준	13

먼저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과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의 듣기 능력 수준이 비슷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교내 영어 대회에서 응시한 모의 TOEIC 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집단의 모의 TOEIC 듣기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모의 TOEIC 듣기 점수의 총점은 50점이다. 그 결과가 <표 3>에 보고되어 있다.

<표 3> 집단의 동질성 검사

집단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준스크립트	35	28.02	5.78	.064	.949
스크립트	34	27.94	5.52		
합계	69	27.98	5.61		

두 집단의 모의 TOEIC 듣기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준스크립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8.02, 5.78이고 스크립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7.94, 5.52이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064, 유의확률은 .949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능력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자료는 수험자들이 본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한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 그리고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수행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 실험 듣기 평가지, 그리고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1.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듣기 평가의 시험 유형이 수험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수험자의 듣기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 실험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활용될 듣기 시험은 영국 Cambridge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영어 능력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학 입학에 필요한 영어 시험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I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술적 목적의 듣기 학습을 주로 하므로 학술적 목적의 영어 능숙도 시험인 IELTS를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 활용하였다. IELTS의 듣기 영역의 문항 유형은 특정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단답식, 선다형 등 듣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문항 유형이 다르게 구성된다. 그리고 음성 자료를 청취하기 전에 음성 자료의 주제를 알려준 뒤, 문제를 살펴볼 시간을 30초에서 1분간 주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예비 듣기 평가를 위해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6, 2007)에서 발간한 *Cambridge IELTS 5*와 *Cambridge IELTS 6*에서 각각 1개의 듣기 자료를 선정하여 총 2개의 듣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듣기 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듣기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 간 대화 자료 1개, 학술 강의 자료 1개를 선정하였다. 각 자료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제이며 모두 단답식이다. 예비 듣기 평가의 경우 해당 출처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의 문항 및 음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2. 본 실험 듣기 평가지

본 연구에서는 듣기 자료 유형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4)에서 발간한 *The Official Cambridge Guide to IELTS*에 나와 있는 듣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듣기 자료의 주제는 수험자들의 사전 내용지식을 통제하기 위해 주제 친숙도가 낮은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듣기 자료의 주제는 hair와 rock art이다.

듣기 평가의 문항 수는 20개이며 문항은 수험자가 강의를 들으며 강의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1-2단어로 직접 작성하게 하는 단답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실험 듣기 평가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을 위해 제작된 듣기 음성 자료의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듣기 평가 음성 자료의 구성

주제	화자	집단	문항 수	음성 길이	단어 수	발화 속도 (분당 단어수)
hair	성우1(여)	준스크립트	10	6분 46초	918	135
		스크립트	10	6분 49초	835	122
rock art	성우2(남)	준스크립트	10	4분 33초	738	158
		스크립트	10	5분 10초	675	130

준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의 음성 길이는 6분 46초, 단어 수는 918개로 발화 속도는 분당 135 단어이다. 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의 음성 길이는 6분 49초, 단어 수는 835개로 발화 속도는 분당 122 단어이다. 준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의 음성 길이는 4분 33초, 단어 수는 738개로 발화 속도는 분당 158 단어이다. 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의 음성 길이는 5분 10초, 단어 수는 675개로 분당 130 단어의 발화 속도를 보인다.

hair 자료와 rock art 자료에서 모두 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보다 음성 길이가 길어지고 단어 수는 적어졌다. 화자별로 나타나는 발화 속도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hair 발화 속도가 rock art 발화 속도보다 느린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Tauroza와 Allison(1990)이 제시한 강의 유형의 자연스러운 발화의 범위 속도인 125-160 단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듣기 음성 자료의 언어적 난이도를 Flesch Reading Ease 점수와 Gunning의 Fog 지수로 분석하였다. Flesch Reading Ease 점수는 0-100사이의 숫자를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언어적 난이도가 낮다, 즉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Gunning의 Fog 지수는 0-20 사이의 숫자를 가지며 숫자가 클수록 언어적 난이도가 높다, 즉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 음성 자료의 언어적 난이도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듣기 평가 음성 자료의 언어적 난이도

주제	듣기 자료 유형	Flesch Ease	Fog Index
hair	준스크립트 기반	93.6	4.9
	스크립트 기반	85.1	8.2
rock art	준스크립트 기반	71.6	9.1
	스크립트 기반	65.9	11.5

주제별로 언어적 난이도를 살펴보면 hair 자료의 Flesch Reading Ease 점수는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93.6, 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85.1이며 Fog 지수는 각각 4.9, 8.2로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스크립트 기반 자료보다 언어적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다. rock art 자료의 Flesch Reading Ease 점수는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71.6, 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65.9이며 Fog 지수는 각각 9.1, 11.5로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스크립트 기반 자료보다 언어적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hair 자료가 rock art 자료보다 언어적

난이도가 낮으며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가 스크립트 기반 자료보다 언어적 난이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hair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듣기 자료의 예시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으며 rock art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듣기 자료의 예시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에서 스크립트 기반 자료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는데 밑줄이 쳐진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인 부분이며 꺾쇠괄호([]) 내 단어는 스크립트 기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발화이다. 그리고 꺾쇠괄호 안에 온점으로 표시된 발화는 휴지를 나타낸다. 준스크립트 집단에 듣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제작한 hair 자료와 rock art 자료 전체를 전사한 자료가 각각 <부록 3>,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 집단에 듣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제작한 hair 와 rock art 스크립트가 각각 <부록 5>,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hair 자료의 예시

<u>준스크립트 기반 자료</u>	<u>스크립트 기반 자료</u>
<p>... Now, I'm gonna talk to you [just] a quick [a quick] overview.. on the structure of hair.</p> <p>[So] [..] as you can see here, the length of the hair is made up of three parts.</p> <p>You've got the bulb, the root, and the shaft.</p> <p>A [..] a single piece of hair [..] is fixed at one end below the skin, and this part is called the bulb.</p> <p>The bulb [..] [is] [..] [it] acts</p>	<p>... Now I'm going to give you a quick overview on the structure of hair.</p> <p>As you can see here, the length of the hair is made up of three parts.</p> <p>You have the bulb, the root, and the shaft.</p> <p>A single piece of hair is fixed at one end below the skin, and this part is called the bulb.</p> <p>The bulb acts like a “cap” . It</p>

[it's kind of] like a cap. Um [...] it encloses the end of the hair in [...] the head. ...

encloses the end of the hair in the head. ...

<그림 4>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른 rock art 자료의 예시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

... *Uh* another thing you can see that's *[that' s]* really common is *[...]* *[are]* animals.

Uh but there's one animal *[that's]* that catches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and that's the lizard. And the lizard's so interesting because ...

So *[...]* in the past archaeologists *[they]* *[...]* theorized that trade must have brought these people together therefore *make them being* able to create these similar drawings.

But researchers *[resear-]* *[uh]* *[com-]* *[they]* have come up with a new theory that *[they]* suggest that the brains of our ancestors evolved to notice *[...]* certain images before others. ...

스크립트 기반 자료

... Another thing you can see that's really common is animals.

But there's one animal that catches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and that's the lizard. And the lizard's so interesting because ...

So in the past the archaeologists theorized that trade must have brought these people together therefore making them able to create these similar drawings.

But researchers have come up with a new theory that suggests that the brains of our ancestors evolved to notice certain images before others. ...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휴지가 자주 나타나며, *just, so, um, uh*와 같은 채워진 휴지의 잦은 사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전에 말한 표현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말하거나(*a quick [a quick], that's [that's]*) 표현의 수정(*is ... are, [that's] that*)도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잘못된 시작(*researchers [resear-] [uh] [com-] [they]*)도 찾아 볼 수 있다.

어문법적 측면에서는 *you've got, it's kind of*와 같은 구어체적 표현이 사

용됨을 알 수 있으며 *going to*와 같은 표현을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gonna*로 발음하여 음운론적 변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준스크립트 방식으로 제작한 듣기 음성 자료는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 어문법적 특징, 음운론적 변형이 모두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머뭇거림 현상이 두드러진 발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스크립트 기반 자료는 기본적으로 준스크립트 기반 자료를 전사한 후, 화자가 머뭇거렸던 표현, 고쳐 다시 말한 표현, 반복적으로 발화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고 잘못된 표현도 수정되었다. 또한 문어체적 표현인 *you've got*은 *you have*로 수정되었으며 *it's kind of*는 구어체적 표현으로 아예 삭제되었다. 또한 *gonna*와 같은 표현도 *going to*로 수정하여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대부분 제거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설문지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는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설문 문항은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폐쇄형 문항의 경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Read(2002)의 설문을 참고 및 수정하여 일부 반영하였고 본 연구에 맞게 질문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었다.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설문지는 <부록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의 구성 요소는 <표 6>과 같다.

<표 6> 설문 문항 구성 요소

분석 대상	설문 내용
전	체 듣기 평가의 난이도
전	체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전	체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본 듣기 평가의 발화 속도/발음/억양/머뭇거림/고쳐 말하기/표현 반복 비교
준스크립트 집단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한 수험자의 태도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 수험자들에게 먼저 본 실험에서 실시한 듣기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화자의 발화에 대해 묻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비교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듣기 자료를 발화 속도, 발음, 억양,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의 반복 측면에서 어떠한지 묻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준스크립트 집단은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비교하여 어떠한 발화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스크립트 집단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듣기 평가 음성 자료가 기존 스크립트 기반 음성 자료와 비슷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한 수험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향후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D. 연구 절차

1. 듣기 자료 유형에 따른 듣기 음성 자료 제작

본 연구를 위한 듣기 음성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영어 원어민 2명이 성우로 참여하였다. 영어 원어민은 여자 1명, 남자 1명으로 여자 원어민은 hair

자료를, 남자 원어민은 rock art 자료를 녹음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우 역할을 한 두 원어민은 모두 미국인으로 여자 원어민은 Michigan 주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1년 7개월 되었으며 직업은 영어 교사이다. 남자 원어민은 Connecticut 주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6개월 된 미국 소재 대학 학생이다.

사전에 연구자가 두 명의 원어민과 만나 듣기 녹음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두 원어민 모두 녹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Massachusetts 공과 대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MIT OpenCourseWare에 접속하여 공개 강의 영상 세 편을 함께 시청하며 강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화의 특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녹음을 하기에 앞서 화자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숙지를 위한 시간을 원하는 만큼 갖도록 하였으며 강의의 흐름과 핵심 단어 등을 메모지에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원어민들은 준스크립트 기반 음성 자료를 녹음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강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스크립트 없이 녹음을 실시하여 준스크립트 집단을 위한 듣기 음성 자료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기반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었다. 스크립트 없이 녹음한 듣기 음성을 전사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전사한 자료를 가지고 불완전한 문장이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화자가 머뭇거렸던 표현, 고쳐 다시 말한 표현, 반복적으로 발화된 표현들을 모두 제거하는 수정 및 편집 작업 거쳐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다. 원어민 화자는 이 스크립트를 읽으며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스크립트 집단을 위한 듣기 음성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예비 실험 실시

예비 듣기 평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험 유형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I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중 매일 아침 듣기 방송을 통해 듣기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아침 듣기 방송은 매일 20분간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여 예비 실험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험자들은 아침에 듣기 평가지, 답안지를 배부 받고 12분 21초 길이의 듣기 방송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답지와 스크립트를 제공받아 각자 채점하고 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3. 본 실험 및 설문 조사 실시

본 실험 듣기 평가는 연습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난 뒤, 각 반 정규 영어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수험자들은 듣기 평가지,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준스크립트 집단은 15분 17초 길이의 듣기 방송을, 스크립트 집단은 15분 57초 길이의 듣기 방송을 청취하며 시험에 응하였다. 듣기 방송이 끝나는 대로 답안지를 회수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험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E.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든 영가설은 신뢰수준 95% ($\alpha = .05$)에서 검증되었으며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실험 이전에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이 동질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 TOEIC 점수를 종속변수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듣기 자료 유형과 수험자의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50점 만점인 모의 TOEIC 점수의 중간값인 27점을 기준으로 27점 이상과 27점 미만 집단으로 상·하위 수준을 설정한 후, 듣기 자료 유형과 상·하위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험자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듣기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화자의 발화에 대한 수험자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두 집단이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인식하는지 발화 속도, 발음, 억양,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의 반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도 분석하였다.

F.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 특정 고등학교 학생 69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연습 듣기 평가를 1회만을 실시한 후, 본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수험자에게 단답식인 듣기 평가 문항 유형에 익숙해질 만한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주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수험자들의 듣기 능력과 점수 사이에 이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언어적 난

이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서 어휘나 담화 구조 변형 하지 않고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제작하였음에도 두 자료 간에 언어적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언어적 난이도를 통제하였을 경우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A.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듣기 자료 유형과 수험자의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상·하 수준으로 나누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듣기 평가의 총점은 20점이며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의 듣기 평가 점수 기술통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집단별 듣기 평가 점수 기술통계

집단	인원 수	평균	표준편차
준스크립트	35	5.97	3.11
스크립트	34	7.73	3.88
합계	69	6.84	3.59

두 집단의 듣기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준스크립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97, 3.11이고 스크립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7.73, 3.88로 두 집단 모두 듣기 평가를 어려워하였으나 준스크립트 집단의 평균 점수가 스크립트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더 낮았다. 다음으로 듣기 평가 점수에 대한 상·하 수준별 기술 통계가 <표 8>에 보고되어 있다.

<표 8> 상·하 수준별 듣기 평가 점수 기술 통계

	집단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준스크립트	상위수준	19	7.26	2.78
	하위수준	16	4.43	2.82
스크립트	상위수준	21	8.71	3.83
	하위수준	13	6.15	3.55

준스크립트 집단 상위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7.26, 2.78이고 준스크립트 집단 하위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43, 2.82이다. 스크립트 집단 상위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71, 3.83이며 스크립트 집단 하위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6.15, 3.55이다. 듣기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준스크립트 집단 하위수준으로 그 평균 점수는 4.43이며 듣기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스크립트 집단 상위수준으로 그 점수는 8.71이다.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듣기 자료 유형과 수험자의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듣기 평가 점수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듣기 평가 점수 이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i>p</i>
듣기 자료 유형	41.86	1	41.86	3.856	.054
듣기 능력 수준	121.04	1	121.04	11.150	.001
듣기 자료 유형*듣기 능력 수준	.29	1	.29	.027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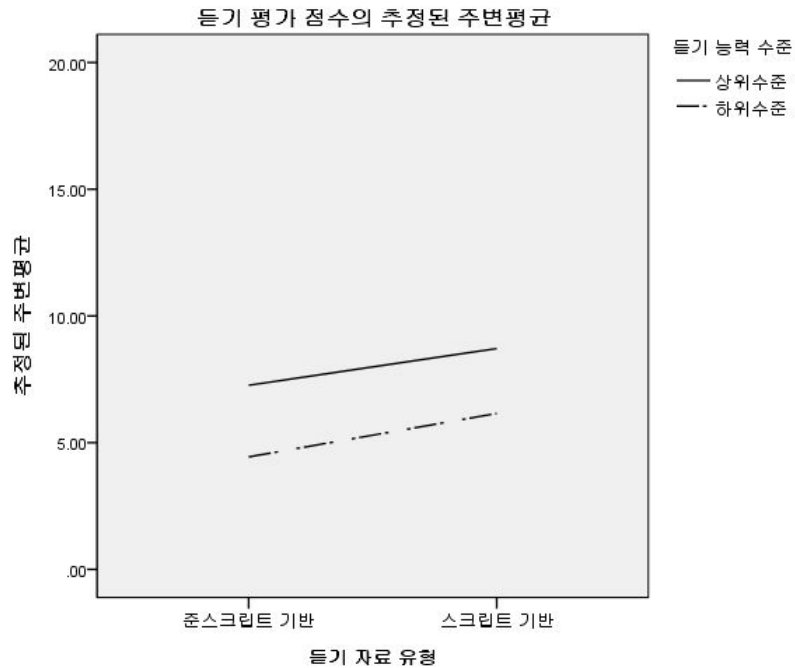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듣기 평가 점수에 대한 듣기 자료 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은 3.856, 유의확률은 .054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평가 점수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의 유

형 듣기 평가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사용되어도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험자가 스크립트 기반 음성 대화 자료보다 스크립트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더 어려워 한다는 Wagner와 Toth(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휴지를 포함한 음성 강의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Chaudron과 Richards(198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를 통해 대화 유형 듣기 평가와 달리 강의 유형 듣기 평가에서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사용되어도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듣기 평가 점수에 대하여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은 .027, 유의확률은 .87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효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의 상호작용의 효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림 5>를 살펴보면 듣기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평행하여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듣기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수험자들이 응답한

본 실험 듣기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다음, 스크립트 기반의 기존 듣기 자료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인식하는지 분석하고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하였다.

1. 듣기 평가의 난이도

수험자들은 듣기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해 먼저 폐쇄형 응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시험이 쉽거나 어렵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하였다. 듣기 평가의 난이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의 응답은 아래 <표 10>에 보고되어 있다.

<표 10> 듣기 평가의 난이도

집단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었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준스크립트	0	0	5 (14.3%)	18 (51.4%)	12 (34.3%)
스크립트	0	2 (5.9%)	8 (23.5%)	19 (55.9%)	5 (14.7%)

듣기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두 집단 모두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준스크립트 집단은 18명, 스크립트 집단은 19명이었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어려웠다(18명), 매우 어려웠다(12명), 보통이었다(5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쉬웠다고 매우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어려웠다(19명), 보통이었다(8명), 매우 어려웠다(5명), 쉬웠다고 매우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준스크립트 집단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라

고 한 응답은 85.7%, 스크립트 집단은 70.6%를 차지하여 준스크립트 집단이 스크립트 집단보다 시험을 더 어렵게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듣기 평가가 쉽거나 어렵다고 느낀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25명, 스크립트 집단은 17명이 응답을 하였다. 먼저, 듣기 평가가 어렵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음이 부정확하다', '평소 듣던 발음과 달랐다' 등 발음과 관련하여 어려웠다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에 쉬거나 끊김이 있다' 등 휴지와 관련한 응답이 4명, '문항 유형이 달라서' 어렵게 느껴졌다는 응답이 4명, '단어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2명, '말의 속도가 빨랐다'는 응답이 2명이었으며 '안 들린다', '줄리다' 등 기타 의견이 6명이 있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에는 듣기 평가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로 '시험 형식이 낯설다'는 문항 유형 관련한 응답이 7명, '발음이 어렵다'는 발음과 관련한 응답이 7명, '단어가 어렵다'는 응답 1명, 기타 '안 들려서'라는 의견이 1명 있었다. 듣기 평가가 쉽다는 응답은 스크립트 집단에서만 나왔는데 듣기 평가가 쉽게 느껴진 이유로는 '문제를 읽을 시간을 주어서 쉬웠다'는 응답과 '너무 빠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이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보다 시험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로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음, 휴지 등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문항 유형에 대한 의견이 발음 못지않게 많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수험자들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보다 더 어렵다고 응답한 Read(2002)의 설문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이 듣기 자료에 포함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으로 인해 시험을 더 어렵게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두 집단의 수험자들이 듣기 평가에 나타난 발화를 자연스럽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듣기 평가에 나타난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묻고 수험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기타 의견란을 구성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듣기 평가에 나타난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의 응답은 <표 11>과 같다.

<표 11>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집단	매우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보통이다	자연스럽다	매우 자연스럽다	평균
준스크립트	4	12	9	8	2	2.77
스크립트	0	6	9	16	3	3.47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준스크립트 집단은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은 부자연스럽다(12명), 보통이다(9명), 자연스럽다(8명), 매우 부자연스럽다(4명), 매우 자연스럽다(2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스크립트 집단은 자연스럽다(16명), 보통이다(9명), 부자연스럽다(6명), 매우 자연스럽다(3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은 없었다. 매우 부자연스럽다를 1점, 매우 자연스럽다를 5점으로 보았을 때 준스크립트 집단의 평균은 2.77, 스크립트 집단의 평균은 3.47로 스크립트 집단이 준스크립트 집단보다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를 좀 더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준스크립트

집단은 3명, 스크립트 집단은 1명이 기타 의견을 주었는데,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기타의견에서 '듣기에는 생소했지만 실제 말하기를 듣는 것 같았다'는 의견과 '더듬기, 중간에 말이 끊기는 현상으로 인해' 발화가 부자연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 어- 이러는 게 듣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지만 평소 이러한 발음 연습에 익숙하지 않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은 본 실험에서 실시한 듣기 음성 자료에 나타난 발화가 부자연스럽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오히려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이 듣기 음성 자료에 나타난 발화를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수험자들이 머뭇거림 현상과 같이 즉흥적인 발화가 갖는 특징을 포함한 듣기 음성 자료를 오히려 듣기 평가 상황에서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험자들이 스크립트 기반 듣기 음성 자료에 익숙하여 이를 자연스럽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수험자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익숙하여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듣기 자료를 낯설어한다는 Underwood(1989)의 견해와 일치한다.

3.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본 듣기 평가 비교

본 실험의 수험자들이 본 듣기 평가에서 사용된 듣기 자료에서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와 비교하여 발화 속도, 발음, 억양, 머뭇거림 현상 측면에서 차이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발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기존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와 비교하여 어떠한 발화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스크립트 집단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듣기 평가 음성 자료가 기존 스크립트 기반 음성 자료와 비슷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

화를 발화 속도, 발음, 억양,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 반복 측면에서 기존의 수험자들이 듣던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된 TOEFL의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와 비교하게 하였다.

가. 화자의 발화 속도, 발음, 억양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 속도, 발음, 억양을 비교하는 설문 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은 각각 <표 12>, <표 13>,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본 시험의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 속도를 비교하게 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은 <표 12>과 같다.

<표 12>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 속도 비교

집단	매우 느리다	느리다	비슷하다	빠르다	매우 빠르다
준스크립트	0	1	11	20	3
스크립트	0	1	19	12	2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의 화자의 발화 속도가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빠르다는 응답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화 속도가 빠르다(20명), 비슷하다(11명), 매우 빠르다(3명), 느리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매우 느리다는 응답은 없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화 속도가 비슷하다(19명), 빠르다(12명), 매우 빠르다(2명), 느리다(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느리다는 응답은 없었다.

두 번째로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음이 명확한 정

도를 비교하게 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은 <표 13>와 같다.

<표 13>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음 비교

집단	매우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비슷하다	명확하다	매우 명확하다
준스크립트	4	23	3	4	1
스크립트	1	21	8	4	0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의 화자의 발음이 명확한 정도를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발음이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준스크립트 집단은 23명, 스크립트 집단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음이 불명확하다(23명), 매우 불명확하다(4명)와 명확하다(4명), 비슷하다(3명), 매우 명확하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발음이 불명확하다(21명), 비슷하다(8명), 명확하다(4명), 매우 불명확하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매우 명확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세 번째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억양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비교하게 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은 <표 14>과 같다.

<표 14>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억양 비교

집단	매우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비슷하다	자연스럽다	매우 자연스럽다
준스크립트	2	14	9	6	4
스크립트	1	8	7	17	1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억양이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억양이 부자연스럽

다는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억양이 부자연스럽다(14명), 비슷하다(9명), 자연스럽다(6명), 매우 자연스럽다(4명), 매우 부자연스럽다(2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억양이 자연스럽다(17명), 부자연스럽다(8명), 비슷하다(7명), 매우 자연스럽다(1명)와 매우 부자연스럽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은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 속도는 빠르고 발음은 불명확하며 억양은 부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은 대체적으로 발화 속도가 비슷하고 억양은 기존 듣기 평가 화자보다 자연스러우나 발음은 불명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준스크립트 기반 수험자들은 발화 속도, 발음, 억양 측면에서 모두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도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가 발화 속도 외에 발음과 억양 측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거나 비교 대상인 기존 듣기 평가 화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와 같은 설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나. 화자의 발화에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

수험자들이 기존 듣기 평가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을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 반복이 나타나는 정도가 어떠한지 응답하게 하였다. 듣기 평가 화자의 머뭇거림 현상

을 비교하는 설문 항목에 대한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의 응답은 <표 15>, <표 16>,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머뭇거림이 나타나는 정도가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이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머뭇거림 비교

집단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비슷하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준스크립트	1	1	3	22	8
스크립트	2	16	7	8	1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머뭇거림이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머뭇거림이 있는 편(22명), 매우 많다(8명), 비슷하다(3명) 없는 편(1명)과 전혀 없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머뭇거림이 없는 편(16명), 있는 편(8명), 비슷하다(7명), 전혀 없다(2명), 매우 많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고쳐 말하기가 나타나는 정도가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이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고쳐 말하기 비교

집단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비슷하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준스크립트	0	2	6	25	2
스크립트	5	15	5	9	0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고쳐 말하기가 나타나는 정도가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고쳐 말하기가 있는 편(25명), 비슷하다(6명), 매우 많다(2명)와 없는 편(2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없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고쳐 말하기가 없는 편(15명), 있는 편(9명), 비슷하다(5명)와 전혀 없다(5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매우 많다는 응답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표현의 반복이 나타나는 정도를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이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17> 기존 듣기 평가 화자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표현 반복 비교

집단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비슷하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준스크립트	0	3	10	21	1
스크립트	6	10	9	9	0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와 비교하여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표현 반복이 나타나는 정도가 어떠한지 묻은 설문 항목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은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립트 집단은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표현 반복이 있는 편(21명), 비슷하다(10명), 없는 편(3명), 매우 많다(1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없었다. 스크립트 집단의 경우 표현 반복이 없는 편(10명), 비슷하다(9명)와 있는 편(9명), 전혀 없다(6명)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으며 매우 많다는 응답은 없었다.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의 반복이 기존의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 화자에 비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은 본 듣기 평가 화자의 발화에서 머뭇거림, 고쳐 말하기, 표현의 반복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에 따라 머뭇거림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구분되며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이 즉흥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머뭇거림 현상을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태도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한 수험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향후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를 위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수험자들의 응답만 분석하였으며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의 응답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에 대한 찬반 의견

집단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상관없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준스크립트	9	10	9	6	0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

자들은 반대 의견이 19명, 상관없다는 의견이 9명, 찬성 의견이 6명으로 반대 의견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 의견보다 13명 더 많았다.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1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반대하는 이유로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 반영하면 많은 문제(예: 사교육)가 발생할 것이다', '억양과 발음이 익숙하지 않다', '발음이 너무 빠르다', '어렵고 적응이 안된다',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찬성하는 수험자들은 '영어로 말할 일이 있을 때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더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상관없다는 의견을 준 수험자는 '모두 같은 음성으로 시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의견을 주었다.

수험자들은 즉흥적인 발화를 포함한 듣기 자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를 시험에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보다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익숙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수험자가 시험을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준스크립트 집단보다 스크립트 집단이 화자의 발화가 더 자연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 수험자들이 머뭇거림 현상과 같이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를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며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수험자들은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듣기 자료 사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언어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에 대한 충분한 노

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많은 학습자들이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를 어색해하지 않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영어 듣기 이해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I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를 실시한 집단의 듣기 점수를 비교하여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준스크립트 집단과 스크립트 집단 간의 듣기 평가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강의 유형 듣기 평가에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사용되어도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험자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렵하다는 Wagner와 Toth(2014)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그러나 휴지를 포함한 음성 강의 자료가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Chaudron과 Richards(198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를 통해 대화 유형 듣기 평가와 달리 강의 유형 듣기 평가에서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한 듣기 자료가 사용되어도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듣기 자료 유형과 수험자의 듣기 능력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집단 간의 상·하위 수준별 듣기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듣기 자료 유형과 듣기 능력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 자료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한 듣기 자료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듣기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두 집단 모두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준스크립트 집단에서 스크립트 집단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보다 더 어렵다고 응답한 Read(2002)의 설문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준스크립트 집단의 수험자들이 듣기 자료에 포함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으로 인해 시험을 더 어렵게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듣기 평가 음성 자료에 나오는 화자의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준스크립트 집단보다 스크립트 집단이 더 자연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 수험자들이 머뭇거림 현상과 같이 즉흥적인 발화가 갖는 특징을 포함한 듣기 음성 자료를 오히려 듣기 평가 상황에서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험자들이 스크립트 기반 듣기 음성 자료에 익숙하여 이를 자연스럽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오랫동안 노출된 수험자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즉흥적인 발화를 듣게 될 경우 이를 어색하게 느낄 수 있다는 Underwood(1989)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 외에도 향후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더 많았는데 수험자들은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듣기 음성 자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자료의 스크립트화 수준을 달리하여 실시한 듣기 평가에서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음성 자료를 실제 듣기 평가에 활용한다면 평가의 긍정적 환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Wagner & Toth, 2014). 평가가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환류효과라고 하는데(Alderson & Wall, 1993)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실시되면 교사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활용한 교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며, 학습자도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Wagner, 2014). 물론 평가를 개발할 때에는 단순히 평가가 교수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수험자나 교사 등 개인 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신상근, 2010).

둘째, 학습자들은 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에 익숙하여 머뭇거림 현상 등이 나타나는 듣기 자료를 더 어렵다고 느끼므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듣기 자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듣기 자료 또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를 학습 목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식 상승 과업 활동과 같은 듣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듣기 학습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Ellis, 2002; Lam, 2002; Rost, 2002).

많은 교사들이 실제적인 언어 입력을 통한 듣기 학습에 동의하나 실제적인 언어 자료는 교사가 학습자를 위해 학습 자료로 다루기에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Rost, 1991). 많은 학자들(Brown & Hilferty, 2006; Field, 2008; Gilmore, 2011; Matsuzawa, 2006; Underwood, 1989)이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교실 수업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왔다. 실제적인 언어 자료가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쉽고 단순한 듣기 후속 과업을 설계하여 실제적인 듣기 자료를 교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Field, 2008; Nunan, 1999; Underwood, 198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학술적 듣기 학습 경험이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긴 강의 유형의 듣기 음성 자료를 실제로 들어본 경험이 적어 이를 듣고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어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을 실제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로 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재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수험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평가가 더 어렵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 수험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자료의 특징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험자들이 준스크립트 기반 듣기 음성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듣기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발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의 이외에 발화 유형에 나타나는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이 수험자의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동규. (2008). 실제적 영어 듣기 및 읽기 자료가 EFL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1(1), 61-84.
- 김영숙, 문영인. (2004). 영어 교재론. 김영숙, 최연희, 김은주, 남지영, 문영인, 신정선 (공저), *영어과 교육론 1: 원리와 적용* (pp.189-220). 서울: 한국문화사.
- 신상근. (2010). *외국어 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최인철. (2010). 영어 발음 속도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1), 99-119.
- 한중임. (2001). *영어음성학과 발음지도*. 서울: 한국문화사.
- Alderson, J. C., & Wall, D. (1993). Does washback exist? *Applied linguistics*, 14(2), 115-129.
- Avery, P., Ehrlich, S., & Jull, D. (1992). Connected speech. In P. Avery & S. Ehrlich. (Ed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pp. 73-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1991). What does language testing have to offer? *TESOL Quarterly*, 25(4), 671-704.
- Blau, E. K. (1990). The effect of syntax, speed, and paus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4(4), 746-753.
- Blau, E. K. (1991). *More on comprehensible input: The effect of pauses and hesitation markers on listening comprehens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0 234).
- Bowen, J. D. (1975). Contextualizing pronunciation practice in the

- ESOL classroom. *TESOL Quarterly*, 6(1), 83–94.
- Brown, G. (1995). *Speakers, listeners,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G., & Yule, G. (1983).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J. D. (2012). *New ways in teaching connected speech*. Alexandria, VA: TESOL International Association.
- Brown, J. D., & Hilferty, A. (2006).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reduced forms for listening comprehension. In J. D. Brown & K. Kondo-Brown (Eds.), *Perspectives on teaching connected speech to second language speakers* (pp. 51–58).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 Buck, G. (2001). *Assessing liste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tterworth, B. (1980). Evidence from pauses in speech. In B. Butterworth (Ed.), *Language production* (pp. 155–176). London: Academic Pres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ambridge IELTS 5*. Cambridge: Autho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Cambridge IELTS 6*. Cambridge: Author.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The official cambridge guide to IELTS for academic & general training*. Cambridge: Author.
- Carr, N. T. (2011). *Designing and analyzing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ter, R., & McCarthy, M.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Spoken and written English grammar and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Brinton, D. M., & Goodwin, J. M. (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 M. Y. (2005). The effect of pauses and hesitation markers on EFL listening comprehensio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1(2), 209–227.
- Chafe, W. (1982). Integration and involvement in speaking, writing and oral literature. In D. Tannen (Ed.),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pp. 35–53). Norwood, NJ: Ablex.
- Chaudron, C., & Richards, J. (1986). The effect of discourse markers on the comprehension of lecturers. *Applied Linguistics*, 7(2), 113–127.
- Chiang, C. S., & Dunkel, P. (1992). The effect of speech modification, prior knowledge and listening proficiency on EFL lecture learning. *TESOL Quarterly*, 26(2), 345–374.
- Ellis, R. (2002). Grammar teaching—Practice or consciousness raising? In J. C. Richards &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pp. 167–1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eld, J. (2008). *Listen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eld, J. (2013). Cognitive validity. In A. Geranpayeh & L. Taylor. (Eds.), *Examining Listening: Research and Practice in Assess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Studies in Language Testing* (77–1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dle, R., & Kostin, I. (1999). Does the text matter in a multiple-choice test of comprehension? the cas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OEFL' s minitalks. *Language Testing*, 16(1), 2–32.
- Gilmore, A. (2007). Authentic materials and authenticit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Teaching*, 40(2), 97–118.
- Gilmore, A. (2011). "I prefer not text": Developing Japanes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 authentic materials. *Language Learning*, 61(3), 786–819.
- Green, A. (2014). Adapting or developing source material for listening and reading tests. In A. J. Kunnan (Ed.), *The companion to language assessment* (Vol 2, pp. 830–846). Oxford: Wiley-Blackwell.
- Griffiths, R. (1990). Speech rate and NNS comprehension: A preliminary study in time-benefit analysis. *Language Learning*, 40(3), 311–336.
- Griffiths, R. (1991). Pausological research in an L2 context: A rationale, and review of selected studies. *Applied Linguistics*, 12(4), 345–364.

- Guariento, W., & Morley, J. (2001). Text and task authenticity in the EFL classroom. *ELT Journal*, 55(4), 347-353.
- Hayati, A. (2010). The effect of speech rate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EFL learners. *Creative Education*, 2, 107-114.
- Henrichsen, L. E. (1984). Sandhi-variation: A filter of input for learners of ESL. *Language Learning*, 34(3), 103-123.
- Jacobs, G., Chuawanlee, W., Itoga, B., Sakumoto, D., Saka, S., & Mehan, K. (1988). *The effect of pausing on listening comprehension*. Paper presented at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Honolulu, HI.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4 018).
- Kienbaum, B., Russel, A., & Welty, S. (1986). *Communicative competenc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with authentic materia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75 200).
- Lam, W. Y. K. (2002). Rais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features of real-world listening input. In J. Richards & W.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248-2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suzawa, T. (2006). Comprehension of English reduced forms by Japanese business people and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ion. In J. D. Brown & K. Kondo-Brown (Eds.), *Perspectives on teaching connected speech to second*

- language speakers* (pp. 59-66).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 McCarthy, M., & Carter, R. (1995). Spoken grammar: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ELT Journal*, 49(3), 207-218.
- McGarry, D. (1995). *Learner autonomy 4: The role of authentic texts*. Dublin: Authentik.
- Messick, S. (1996). Validity and washback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3(3), 241-256.
- Nunan, D.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 Heinle & Heinle.
- Oxford, R. (1993). Research update on teaching L2 listening. *System*, 21(2), 205-211.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Winthrop.
- Peacock, M. (1997). The effect of authentic materials on the motivation of EFL learners. *ELT Journal*, 51(2), 144-156.
- Pica, T., Young, R., & Doughty, C. (1987). The impact of interaction on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1(4), 737-758.
- Rashtchi, M., & Afzali, M. (2011). Spoken grammar awareness raising: Does it affect the listening ability of Iranian EFL learn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1(4), 515-531.
- Read, J. (2002). The use of interactive input in EAP listening assessment.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2),

105–119.

-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2), 219–240.
- Richards, J. C. (2006). Materials development and research: Making the connection. *RELC Journal*, 37(1), 5–26.
- Rost, M. (1991). *Listening in action: Activities for developing listening in language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Rost, M.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listening*. Harlow, UK: Pearson Education.
- Rubin, J. (1994). A review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resear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8(2), 199–221.
- Scarcella, R. C., & Oxford, R. L. (1992). *The tapestry of language learning: The individual in the communicative classroom*. Boston, MA: Heinle & Heinle.
- Shohamy, E., & Inbar, O. (1991). Validation of listening comprehension tests: The effect of text and question type. *Language testing*, 8(1), 23–40.
- Tannen, D. (1982). The oral literate continuum of discourse. In D. Tannen (Ed.),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pp. 1–16). Norwood, NJ: Ablex.
- Tauroza, S., & Allison, D. (1990). Speech rates in British English. *Applied Linguistics*, 11(1), 90–105.
- Tomilison, B. (1998).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e, J. E. F. (1995). The effects of false starts and repetitions on the processing of subsequent word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4(6), 709–738.
- Tremblay, R. (1989). *Production orale non-interactive*. Montreal: Centre Educatif et Culturel.
-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London: Longman.
-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dergrift, L., & Goh, C. C. M. (2012). *Teaching and learn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New York: Routledge.
- Voss, B. (1979). Hesitation phenomena as sources of perceptual errors for non-native speakers. *Language and Speech*, 22(2), 129-144.
- Wagner, E. (2014). Assessing listening. In A. J. Kunnan (Ed.), *The companion to language assessment* (Vol 1, pp. 47-63). Oxford: Wiley-Blackwell.
- Wagner, E., & Toth, P. D. (2014). Teaching and testing L2 Spanish listening using scripted vs. unscripted texts. *Foreign Language Annals*, 47(3), 404–422.
- Widdowson, H. G. (2003). *Defining issu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J. J. (2008). *How to Teach Listening*. Essex: Longman.
- Wong, V., Kwok, P., & Choi, N. (1995). The use of authentic materials at tertiary level. *ELT Journal*, 49(4). 318–322.

<부록 1> 예비 실험 듣기 평가지

SECTION 1 Questions 1-10

Questions 1-4

Complete the sentences below.

Write **NO MORE THAN THREE WORDS AND/OR A NUMBER** for each answer.

MARKETING ASSIGNMENT

- 1 For their assignment, the students must investigate one part of the _____.
- 2 The method the students must use to collect data is _____.
- 3 In total, the students must interview _____ people.
- 4 Jack thinks the music preferences of _____ listeners are similar.

Questions 5-10

Complete the notes below.

Write **NO MORE THAN TWO WORDS** for each answer.

Marketing Survey: Music Preferences	
Age group of interviewee	Medium for listening to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or under• 45 or 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dio• CD• TV• 7 _____
Music preferences	Source of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p• 5 _____• Folk• Easy listening• 6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sic shops• 8 _____• Internet
	Places for listening to 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co• Pub• 9 _____• Concert hall• 10 _____

SECTION 2 Questions 11-20

Questions 11-15

Complete the sentences below.

Write **NO MORE THAN THREE WORDS** for each answer.

- 11 According to George Bernard Shaw, men are supposed to understand _____, economics and finance.
- 12 However, women are more prepared to _____ about them.
- 13 Women tend to save for _____ and a house.
- 14 Men tend to save for _____ and for retirement.
- 15 Women who are left alone may have to pay for _____ when they are old.

Questions 16-20

Complete the summary below.

Write **NO MORE THAN THREE WORDS AND/OR A NUMBER** for each answer.

Saving for the Future

Research indicates that many women only think about their financial future when a **16** _____ occurs. This is the worst time to make decisions. It is best for women to start thinking about pensions when they are in their **17** _____. A good way for women to develop their **18** _____ in dealing with financial affairs would be to attend classes in **19** _____. When investing in stocks and shares, it is suggested that women should put a high proportion of their savings in **20** _____. In such ways, women can have a comfortable, independent retirement.

<부록 2> 본 실험 듣기 평가지

SECTION 1 Questions 1-10

Questions 1-8

Complete the notes below.

Write **ONE WORD AND/OR A NUMBER** for each answer.

Hair

Facts about hair

- main purposes – warmth and **1** _____
- main component *keratin* – makes fingernails **2** _____
- full head of hair can support a large weight - equal to two **3** _____
- average number of strands of hair - **4** _____ for an adult
- large amount of money spent on **5** _____ for hair in the UK

Structure of hair

Three main parts:

- a) bulb - like a **6** _____ over end of hair follicle
- b) root - contains glands that supply **7** _____ to hair strand
- c) shaft - not **8** _____

Questions 9-10

Complete the summary below.

Write **ONE WORD ONLY** for each answer.

Health and Hair

Changes in diet will take longer to affect your hair than your **9** _____ .
Vitamins C, D and E are all important for healthy hair and **10** _____ are
one of the best sources for Vitamin C.

SECTION 2 Questions 11-20

Questions 11-16

Complete the notes below.

Write **ONE WORD ONLY** for each answer.

Rock Art

Why rock art is important to researchers

It provides evidence about

- evolution
- 11 _____

Global similarities in rock art

- humans often had large 12 _____
- animals were common, but a 13 _____ was always drawn from the side of from above.
- unlikely that contact through 14 _____ resulted in similar artistic styles

Why our ancestors produced rock art

Research suggests rock art was produced

- firstly for reasons of 15 _____
- later for social, spiritual and 16 _____ reasons.

Questions 27-30

Answer the questions below.

*Write **ONE WORD ONLY** for each answer.*

What **TWO** images drawn by Aboriginal people show their contact with Europeans?

- **17** _____
- **18** _____

Which human activities does the lecturer say are the main threats to Aboriginal rock art?

- **19** _____
- vandalism
- **20** _____

<부록 3> 준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

so, today.. as part of the human biology course, we' re going to discuss hair. we gonna talk about everything from the structure of hair to.. wh- what can generally affect um.. the health of hair. so.. let' s think, first of all, what is hair? and.. why do we even have it? well, if you think back to ancestral times, ... people back then had.. a- lot more hair than we do now. now there were 2 reasons for having hair. the first one.. was warmth. now-a-days and for a long time, humans have worn clothes, so.. we' ve seen.. just a prett-y large reduction in hair because.. frankly, we- we don' t need it as much now. now the other one is protection. now, similarly.. to warmth, we.. it' s not as significant as it once was. but, it still does offer some benefits to parts of our body like.. our eyes or our head. now.. hair. wherever it is, whenever.. whatever it is. it is made up of a protein called.. keratin. so keratin is also found in fingernails. um.. it' s what makes your fingernails flexible. and without it, they would be really rigid and tough. so. a surprising thing about hair.. is actually very very strong. one strand of hair.. can hold.. up- to- one hundred gram. now that doesn' t sound like a lot, but, consider this. consider an entire head of hair. so.. on average an entire head of hair can support up to twelve- tons. twelve tons? is about.. two elephants. now.. that is amazing, but if i were you, i wouldn' t go home and.. test that out. now humans, as humans we lose... up to.. in about hundred strands a day, but.. we have a lot of hair to start with so.. you don' t really you don' t really notice. now, it d.. depending on color there is a variation in strand count.. but on average.. the adult strand count is.. one hundred thousand, so we lose 100, give or take, um it' s not too big of a deal. people with red hair have about eighty thousand strands; where as black and brown have hundred thousand and blondes have about one hundred and twenty thousand. now. hair has been important for... the reasons i mentioned earlier; but these days, you know hair is important for.. a totally

different reason. it is business. the hair industry is a big business. a part from.. the money involved in hair styling, um.. shaving, trimming and just.. hair cutting, a fortune is spent on hair products. if we take.. the uk alone, consumers in uk spend, over 5 billion pounds a year on hair product. now, i' m gonna talk to you just a quick a quick overview.. on the structure of hair. so..as you can see here, the length of the hair is made up of three parts. you've got the bulb, the root, and the shaft. a.. a single piece of hair.. is fixed at one end below the skin, and this part is called the bulb. the bulb..is.. it acts it's kind of like a cap, um.. it encloses the end of the hair in.. the head. so the next part here.. is the root. um.. this is the part of the hair that's right- underneath the skin, and we are talking hair productive.. hair product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um it's kind of like the control- center.. for.. each strand of hair. it's also where the glands are found. the gland.. this is this is where oil is produced. and the oil flows along each.. flows along end of the length of the hair. and the overall health of the root.. is what determines the overall health.. of each piece of hair. and the last part.. is called the shaft. and this is the part we see. this is the hair that above the skin. and now.. the shaft.. a.. there's no nerves, so it's not active. and.. fortunately, it's not active. and i say this because, think about it: if it were active, it would be very- painful to have your hair cut. now lastly we are gonna talk about a few factors that impact your.. the health of your hair. now just like any other part of your body, diet is really- important. you know what we eat.. greatly affects the condition of our hair. but, you know when we change our diet.. for example, if we start eating unhealthy foods, pretty soon.. we' ll see.. a noticeable difference in our skin. but... the same changes in our hair are gonna take a lot longer. so let's see. if we were to change our diet today, it would take several months.. to.. see a noticeable effect on our hair. so.. so what.. is.. the.. what is the key to having healthy hair? well like i said before, it it really is a balanced diet. die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s -s a slew of vitamins.. that you know can really benefit and are vital for

good hair health; but, the main ones [xx] vitamins c, d, and e: all of which, if you are eating.. a.. balanced diet, they should be pretty plentiful and ready- readily available. but um.. if you are looking to boost vitamin c.. one of the best things you can eat are blueberries. now, vitamin d, you should look for.. fish.. mushrooms.. eggs... whereas vitamin e, um.. it's great to eat nuts and seeds. now let' s go onto...

<부록 4> 준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

hi everybody. welcome back to my continued lecture on uh devel- on the development of early humans. uh- today i was specifically wanna look at rock art. and uh- what is rock art? well, it's technically defined as the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by the prehistoric people, are also known as our ancestors. um.. but, as researchers, we wanna find the practical value of rock art. uh- we firstly, we can see that it gives us vital information about the way people evolved. we can we can just tell by the different styles acro- uh- as time as time done. uh we can also see...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ir migration. uh- we' ll find out where did they come from and where did they go to. what' s interesting about rock art is that it can be found... all over the world and you might be.. in south africa and you might find a piece of rock art or you might be.. uh- in.. in a cave inside spain somewhere and you might see a piece of rock art. uh- for example, our ancestors, when they drew humans, ... they always drew them as stick figures and.. if these stick figures somehow happened to have a face, the eyes were drawn very open and wide. uh another thing you can see that's that' s really common is.. are animals. uh but there' s one animal that's that catches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and that' s the lizard. and the lizard' s so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find one in a prehistoric painting it' s portrayed either in profile or looking down on it from above. and i find it really amazing tha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drawings could be so similar regardless of their cultural backgrounds and c- regardless of where they came from. so .. in the past archaeologists they.. theorized that trade must have brought these people together therefore make them being able to create these similar drawings. but researchers resear- uh com- they have come up with a new theory that they suggest that the brains of our ancestors evolved to notice.. certain images before others. and if you think about this theory uh you can basically kind of tell that um it kind of makes

sense because.. this was essential during the time for survival because of all the dangers in the environment in that particular era. but obviously later on there were other reasons um such as.. there're spiritual reasons, and there're social purposes and obviously there were political purposes. (throat) earlier i mentioned that rock art was prevalent everywhere in the world but right now i would like to be more specific and focus more on the aboriginal people of australia. um.. the images that survive today in australia span at least twenty thousand years. and.. these aboriginal people were still practicing this this form of rock art even up to the late 18th century. and we can tell that this happened because that was when the europeans came in contact with the aborigines, and once the europeans.. made contact with these people, uh you would be you find you start to find new images, such as ships. uh for example the aborigines would draw.. the ships they saw along the coast. and you know it' s really hard for us to imagine what they might have felt when they shock saw ships for the first time. and another example would be the depictions of horses. and the at the time the horse's foreign to the australian land, so.. uh when the europeans came obviously the horse was a foreign animal too and they would draw those. so.. if we gonna bring back to the present time, we can- we can' t really be sure of how many sites there are across australia right now. um but we do know that a lot of the rock art in australia being lost and obviously the number one culprit would be erosion because.. everything erodes over time. but industry has been a huge problem too. uh even a just in the 1960s, the in- in- indu- industry alone has destroyed about ten thousand pieces of art and at this rate, basically in 50 years, half of all the australian art would be destroyed. um another reason is vandalism, sadly. and although most people, i believe, would.. wish to preserve this art, i am afraid tourism is another reason why the art is disappearing.

<부록 5> 스크립트 기반 hair 자료

Today as part of the human biology course, we're going to discuss hair. We're going to talk about everything from the structure of hair to what can generally affect the health of hair. So let's think, first of all, what is hair? And why do we even have it? If you think back to ancestral times, people back then had a lot more hair than we do now. There were 2 reasons for having hair. The first one was warmth. Now-a-days and for a long time, humans have worn clothes, so we've seen a pretty large reduction in hair because frankly, we don't need it as much now. Now the other one is protection. Similar to warmth, it's not as significant as it once was. It still does offer some benefits to parts of our body like our eyes and our head. Now hair: wherever it is, whenever, and whatever it is, is made up of a protein called keratin. Keratin is also found in fingernails. It is what makes your fingernails flexible. Without it, they would be really rigid and tough. A surprising thing about hair is that it is actually very strong. One strand of hair can hold up to 100 grams. Now that doesn't sound like a lot, but consider an entire head of hair. On average an entire head of hair can support up to 12 tons. 12 tons is about 2 elephants. Now that is amazing, but if I were you, I wouldn't go home and test that out. As humans we lose about 100 strands a day, but we have a lot of hair to start with so you don't really notice. Depending on color there is a variation in strand count but on average the adult strand count is 100,000, so if we lose 100, give or take, it isn't too big of a deal. People with red hair have about 80,000 strands; where as black and brown have 100,000 and blondes have about 120,000. Now, hair has been important for the reasons I mentioned earlier; but these days, hair is important for a totally different reason. It is business. The hair industry is a big business. A part from the money involved in hair styling, shaving, trimming and hair cutting, a fortune is spent on hair products. If we take the UK alone, consumers spend over 5 billion

pounds a year on hair products. Now I'm going to give you a quick overview on the structure of hair. As you can see here, the length of the hair is made up of 3 parts. You have the bulb, the root, and the shaft. A single piece of hair is fixed at one end below the skin, and this part is called the bulb. The bulb acts like a "cap". It encloses the end of the hair in the head. This next part here is the root. This is the part of the hair that is right underneath the skin, and in terms of hair produc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t is like the control center for each strand of hair. It is also where the glands are found. The gland is where oil is produced. The oil flows from the end along the length of the hair. The overall health of the root is what determines the overall health of each piece of hair. The last part is called the shaft. This is the part we see. This is the hair that is above the skin. In the shaft there are no nerves, so it is not active. Fortunately, it is not active. I say this because, think about it: if it were active, it would be very painful to have your hair cut. Now lastl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 few factors that impact the health of your hair. Just like any other part of your body, diet is really important. What we eat greatly affects the condition of our hair. When we change our diet or, for example, if we start eating unhealthy foods, pretty soon we'll see a noticeable difference in our skin. However, the same changes in our hair are going to take a lot longer. If we were to change our diet today, it would take several months to see a noticeable effect on our hair. What is the key to having healthy hair? Like I said before, it really is a balanced diet. Die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are a slew of vitamins that can really benefit and are vital for good hair health; but, the main 3 ones are Vitamins C, D, and E: all of which, if you are eating a balanced diet, are plentiful and readily available. If you are looking to boost Vitamin C one of the best things you can eat are blueberries. For Vitamin D, you should look for fish, mushrooms, and eggs; whereas for Vitamin E, it is great to eat nuts and seeds. Now let's go onto...

<부록 6> 스크립트 기반 rock art 자료

Hi everybody. Welcome to my continued lecture on the development of early humans. Today I specifically want to look at rock art. And what is rock art? Well, it's technically defined as the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by the prehistoric people, also known as our ancestors. But, as researchers, we want to find the practical value of rock art. Well, firstly, we can see that it gives us vital information about the way people evolved. We can just tell by the different styles as time moved on. We can also see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ir migration. We'll find out where did they come from and where did they go to. What's interesting about rock art is that it can be found all over the world. You might be in South Africa and you might find a piece of rock art or you might be in a cave inside Spain somewhere and you might see a piece of rock art. For example, our ancestors, when they drew humans, they always drew them as stick figures and if these stick figures somehow happened to have a face, the eyes were drawn very open and wide. Another thing you can see that's really common is animals. But there's one animal that catches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and that's the lizard. And the lizard's so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find one in a prehistoric painting it's portrayed either in profile or looking down on it from above. I find it really amazing tha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drawings could be so similar regardless of their cultural backgrounds; regardless of where they came from. So in the past the archaeologists theorized that trade must have brought these people together therefore making them able to create these similar drawings. But researchers have come up with a new theory that suggests that the brains of our ancestors evolved to notice certain images before others. And if you think about this theory you can tell that it makes sense because this was essential during the time for survival because of all the dangers in the environment in that particular era. But obviously later on there were other reasons such as spiritual reasons, and

social purposes and of course there were political purposes. Earlier I mentioned that rock art was prevalent everywhere in the world but right now I would like to be more specific and focus more on the aboriginal people of Australia. The images that survive today in Australia span at least 20,000 years. And these aboriginal people were still practicing this form of rock art even up to the late 18th century. And we can tell that this happened because that was when the Europeans came in contact with the Aborigines, and once the Europeans made contact with these people, you start to find new images, such as ships. For example the aborigines would draw the ships they saw along the coast. And it's really hard for us to imagine what they might have felt when they saw ships for the first time. And another example would be the depictions of horses. At the time the horse was foreign to the Australian land. So when the Europeans came the horse was a foreign animal and they would draw those as well. So if we fast forward to the present time, we can't really be sure of how many sites there are across Australia right now. But we do know that a lot of the rock art is being lost and obviously the number one culprit would be erosion because everything erodes over time. But industry has been a huge problem too. Just in the 1960s, industry alone has destroyed about 10,000 pieces of art and at this rate, basically in 50 years, half of all the Australian art would be destroyed. Another reason is vandalism, sadly. And although most people, I believe, would wish to preserve this art, I am afraid tourism is another reason why the art is disappearing. In some cases, the art is damaged when ...

<부록 7> 설문지

실험 및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반 ()번

1. 오늘 치른 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 이었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1-1. 시험이 쉽거나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_____

2. 시험에 나오는 화자(speaker)의 발화(speech)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 매우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보통이다. 자연스럽다. 매우 자연스럽다.
- 기타의견 ()

3. 이 시험은 기존의 듣기 평가(아침 듣기 방송)의 화자의 발화와 비교해서 어떨습니까?

발화 속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느리다	<input type="checkbox"/> 느리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빠르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빠르다.
발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명확하다.
역양	<input type="checkbox"/> 매우 부자연스럽다.	<input type="checkbox"/> 부자연스럽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자연스럽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자연스럽다.
머뭇거림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없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있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다.
고쳐말하기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없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있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다.
표현 반복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없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있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다.

3-1. 이 외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주시시오.

다른 점: _____

3-2. (모든 항목 '비슷하다' 답변자는 제외) 이러한 다른 점은 본 듣기 자료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그다지 보통 어느정도 매우
도움되지 도움되지 이다. 도움이 도움되었다.
않았다. 않았다. 되었다.

3-3. (모든 항목 '비슷하다' 답변자는 제외) 향후, 이러한 듣기 음성을 활용한 듣기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상관없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이유: _____

4.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4-1. ('예' 응답자만)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까?

-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년 이상

4-2. ('예' 응답자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서술해주시시오.

교육을 받았던 나이: 만 _____ 장소: (나라 및 교육기관) _____

교육 받았던 내용: _____

ABSTRACT

The effects of the use of semi-scripted text 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est-takers' perception on semi-scripted text

Kim, Younghwa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Most listening texts for English listening test are scripted and recorded by the native speaker reading the script. Scripted texts tend to be missing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realistic spoken language, including hesitation phenomena.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ontaneous speech in the listening text to enhance construct validity of the test. For this reason, semi-scripted text could be considered. Compare to the script method, semi-script method provides more possibility of speaking naturally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using semi-scripted text and scripted text o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percep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n different text types. This study conducted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on 69 high school students with different text typ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xt type on the result of listening test of the test-taker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if there is interaction effect between type of listening text and the level of listening competence,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the test-takers on different listening text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xt type has not affected the test-takers' listening performa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listening test between the group tested with semi-scripted text and the group tested with scripted text.

Second, there was no different effect of text types depending on test-takers' listening competence.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n listening test score of high and low level shows that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ype of listening text and the level of listening competence.

Third, the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indicated that students in the group with semi-scripted texts felt the test was more difficult and speakers' speech was unnatural. Also test-takers overall tended to show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idea of using the semi-scripted text in actual listening tests because they were more accustomed to the traditional scripted listening tex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sult of listening test conducted with different levels of script for listening text, positive washback effect is expected if semi-scripted text is utilized in actual listening test. When listening test based on semi-script is actually conducted, teachers will feel more necessity to utilize authentic listening materials including spontaneous

speech and learners will also be motivated to listen and understand them.

Second, constant exposure to listening materials including spontaneous speech is necessary because learners feel semi-scripted text is more difficult than scripted text due to their familiarity to scripted text. If teachers use authentic or semi-scripted text in classroom effectively through following easy and simple listening tasks, they can help learners understand authentic language materials more easily.

More attempts to use listening tex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pontaneous speech should be made in both the classroom and testing contexts by consistently providing more suitable listening materials and assessing important listening skills at the same time.